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음 9월 24일) 제16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주비빔밥, 세계인의 입맛을 탐하다

2016 UNESCO Intergovernment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novative Solutions to Food Security

지난 21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16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포럼'이 열린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흔들고 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 비빔밥을 홍보하는 '비빔밥 공동 웹사이트'를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 자크 까스테레 프랑스 국립 인류학 연구 및 자료보존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전주시에 중국 청두, 스웨덴 의스터순드, 이탈리아 파르마, 태국 푸켓 등 전 세계 12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와 후보도시인 중국 마카오,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16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까스테레 소장은 이날 포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제안' 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비빔밥 공동 웹사이트' 프로젝트는 비빔밥의 역사적,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포럼

'비빔' 공동 웹사이트' 세계화 위해 개발 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세계인이 주목하는 명물"

사회적, 인류학적, 철학적, 그리고 영양학적인 측면을 강조해 설명하게 된다"면서 "인터넷 검색 시스템을 통해 농식품 정보 및 식품가공 노하우, 비빔밥의 정체성 등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한 이 프로젝트는 뉴욕에서 파리를 거쳐 베

를린에 이르기까지 비빔밥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음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국제(비빔밥) 커뮤니티'로 성장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주비빔밥의 우수성 및 세계화 가능성을 소개하는 발표도 이어졌다.

차진아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는 "전주음식과 전주비빔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비빔밥은 전주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전주비빔밥은 30여 가지가 넘는 재료로 서로 어우러진 맛을 내는 조화와 균형의 음식으로, 세계인이 주목하는 전주의 명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특히 "전주비빔밥의 맛과 장식에 쓰이는 오색과 오미의 재료들

은 동양철학의 음양오행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어 동양 철학의 핵심인 음양오행의 원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음식이다"라며 "각 개인의 건강과 영양상태, 기호에 맞춰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영양적인 음식이어서 과학적인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강음식, 전주비빔밥의 과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차연수 전북대학교 교수는 "비빔밥 재료를 지역, 날씨, 문화, 및 식품구입 여건 등에 맞게 조리할 수 있어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 음식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전주비빔밥은 영양과학의 원리를 알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사랑 받았으며, 현대 영양과학의 기본지침인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적절히 섭취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대표 일품요리라 할 수 있다"면서 "현대 영양과학이 추구하는 5대 영양소와 칼로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전통 철학인 음양오행의 색과 맛을 담아낸 한 그릇의 조화에는 조상의 지혜와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인 '음식창의도시 협력방안'에서는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1년간 음식창의도시 회원들끼리 논의가 되어왔던 세계미식시즌에 대한 주제발표, 에릭 울프 세계음식관광협회장의 '창의적 터비즈니스-시민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날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주 발효식품엑스포와 2016 전주 비빔밥축제를 참관하는 것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영재 기자

'누리예산 미평생' 경기·전북교육청 교부금 감액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미평생분을 뺀 나머지가 교부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예정 교부안 관련 "타 교육청과 형평성 문제"

김승환 전북교육감 "감액 교부시 법적 조치"

교육부는 매년 내국세의 20.27%에 달하는 교부금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받은 교부금으로 한해 예산을 편성한다.

교부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통 교부금 감액 대상은 경기·전북 교육청 등 2곳이다. 경기교육청에 5,356억원, 전북교육청 762억원 등 모두 6,118억원이 감액교부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내년도 교부금을 그대로 교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다만 경기·전북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2월에는 감액 없이 교부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할 내년도 교부금은 총 44조 2,839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4,992억(11.3%)증가했다. 교육청은 내년도 교부금 중 특별회계 예산 5조1,990억원은 누리과정·초등돌봄 등 5개 사업에 편성해야 한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미평생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 감액을 통보한 가운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지난달 열린 확대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교부가 '업무상 협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은 "민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불기소될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김제 벽골제, 세계관개시설유산에 등재

내달 8일 국내 최초로

다. 본 관개시설물유산제도를 운영하는 국제관개배수위원회는 1950년에 설립되어 인도 뉴델리에 본부를 두고 세계 75개 회원국과 UNDP(유엔개발계획),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20 여개의 국제기구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비정부 과학기술 분야 국

제기구이다. 국제관개배수위원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UNESCO(UN교육과학문화전문기구) 등의 자문기관으로 활동하며 관개·배수·홍수조절·환경보전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국제 교류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 가입했고 농식품부 소속 사단법인인 한국관개배수위원회가 국제관개배수위원회의 한국지부로 활

동하고 있다. 국가사적 제111호인 김제 벽골제는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로 1700여년의 역사적 가치와 제방 단면구조와 제방의 총길이 3,250m, 저수지 면적은 37km² 등, '건설기술, 시설물의 크기, 취수유량, 관개면적에서 그 시대의 선도적인 사실'로서의 가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천시 김제시장은 "그간 벽골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김제시의 노력



이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벽골제관련 고고학적 발굴조사 및 사료집성 발간 등의 사업과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을 통해 김제 벽골제와 호남평야의 가치선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가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가 다가오는 11월 8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세계관개시설유산(HIS, Heritage Irrigation Structures)에 등재된다.

세계관개시설유산이란 국제관개배수위원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도를 차용(借用)해 역사적 사회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관개시설을 유지 보존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 국내 최초로 김제 벽골제와 수원 축만제가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관개시설유산 보유국이 된

SēAH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특수강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1위의 특수강 전문기업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 및 트랜스미션에서 발전 및 화공플랜트, 선박, 산업 기계까지 대한민국 특수강 No.1 기업을 넘어 특수강 글로벌 리더 기업을 향해 나갑니다.



미래를 만드는 철의 기술 -

SēAH 세아베스틸